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양정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요즈음은 이혼부부간에 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사회가 핵가족화 되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들은 아이를 길러줄 사람이 없어(옛날처럼 부모나 형제들이 양육을 맡아주지 않아) 자기가 맡으면 아주 재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재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말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가정에서 살림만해서 이혼한 후 자신이 앞으로 혼자서 살아가는데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특히 경제력이 없는데 대해 아이 맡기를 두려워 한다.

자식은 남자의 씨라는 어

려서부터 노래가락처럼 들어온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 남편과는 정말 살고 싶지 않은데 자식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았다는 여자들조차도 이혼시에는 자식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부로 사는 동안에는 '자식을 보아서 살아야 한다'고 딸에게 권유하던 친정어머니도 '남의 자식을 맡아 길러주며 고생할 필요 없다. 아이 맡은 생각도 말아라' 하고 딸에게 강요하는 걸 보게 된다.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어미가 새끼를 키우지 애비가 키우는 걸 보았는가? 어린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도 어머니가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 왔지 않았느냐? 자식이 잘 자라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면 기쁜 사람은 어머니요 아이가 불량 청소년이 되거나 나쁜 사람으로 자라 사회에 해악을 주는 존재가 될 때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은 어머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에 정서와 인성 발달과 인격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받아 인간으로 형성되어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실감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인공수

아가가 생기는데 아버지가 한 일이라고는 정자 하나 준 것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도 어머니보다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는 게 자연의 섭리이다.

그러한 자연의 섭리와 이제까지 아이와 함께 지낸 밀착도 등을 감안해서 어머니나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해야 바람직하지 않겠

**그 단어만 보고도 주인과 그에 속한 종속물
소유물이 있구나 하고 연상되는 호주제도를
현행법상의 명문규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정관에 아버지에게서 나온 정자만을 넣어 수정이 되는가? 어머니에게서 나온 난자를 함께 넣어야 수정이 된다. 과학의 힘으로도 수정까지만 시킬 수 있지 수정관에서 인간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수정란을 어머니 뱃속에 넣어 10개월이 지나야 인간이 되는 것이다.

내가 권유하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호적을 제호적으로 파울 수 있습니까?" 하고 백이면 백명이 다 문의해 온다.

이제 법이 바뀌어 친권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 호주제도가 법률상 존재하고 있어 호적은 아버지에게 그냥 있고 어머니 호적으로 옮겨 갈 수

없다 알려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당사자는 물론이요 함께 온 가족들이 더 강경하게 왜 남의 자식을 우리가 왜 길러주느냐 호적을 파울 수 없다면 말으면 안된다고 한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호적을 옮겨오지 않고 아이가 남자 호적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아이 주인은 남자로서 힘들여 길러놓으면 언제라도 주인이 자기 자식 내놓으라 와서 주장하면 안줄 수 없고 또 아이가 자라면 주인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친권을 가지는게 아이에 대한 법적인 부모로써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

사회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은 늘어 갈 수 밖에 없고 인간의 힘으로 이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혼부부 사이에 자녀들의 문제를 그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그 아이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느냐에 따라 장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가 양육을 맡도록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그 중 첫째가 그 단어만 보

고도 주인과 그에 속한 종속물·소유물이 있구나 하고 연상되는 호주제도를 현행법상의 명문규정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한 부모와 자식간, 호주와 가족간의 소유물·종속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가정, 사회 여러분야에서 불씨로 남아 개개인의 인권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자살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동반자살을 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사상에서 기인한 것이다.

남자, 여자 자녀 모두가 인간일진데 남자, 아버지(父), 남편(夫), 호주의 인간의 존엄성은 인정되고 여자, 어머니, 아내(婦), 가족원은 무시되는 사회란 진정한 인간의 사회라 할 수 없다.

민주사회는 바로 진정한 인간의 사회 인간 개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 서로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호주제도는 호주와 가족의 유대와 연대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가족 친족만을 위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조장시킨다. 사회적 공동체 의식과 협조정신을 희박케 하여 사회,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호주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